

한국 야구의 '미래', 한단계 더 성장

세계무대 누비는 빅리거 상대로 경험치 쌓아

MLB 샌디에이고·다저스와 평가전 거치며 성장세 확인

한국 야구의 '미래'가 둔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하며 한 뼘 더 자랐다. 세계 최고의 무대를 누비는 빅리거를 상대하며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얻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야구 대표팀은 17~1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와 평가전을 치렀다.

결과는 2경기 모두 패배였다. 샌디에이고에 0-1로, 다저스에 2-5로 졌다.

그러나 "대등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류종일 대표팀 감독의 기대대로 딱딱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야구는 세계대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마침 지난해에는 2022 한중우 아시안게임, 아시아프로야구퍼업십(APBC)이 예정돼 있었다.

한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수 선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유망주 위주로 대표팀을 꾸리기로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년 미뤄지면서 만 24세 이하, 프로 4년차 이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기로 가이도라인을 구성했다.

APBC도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였다.

한국 야구는 연말이 열리는 아시안게임, APBC를 세대교체의 주축을 이룰 유망주를 발굴하고, 성장을 유도할 기회로 삼았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망주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하다보니 전력의 격차가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유망주들은 대회 초반 위기를 딛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예상을 보기 좋게 했다.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APBC 대표팀은 준우승에 만족했지만, 결승에서 일본과 대등한 승부를 벌여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지는 등 성장세를 보여줬다.

아시안게임, APBC를 거치면서 문동주(한화 이글스),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곽민(두산 베어스) 등 미래 한국 마운드를 책임질 유망주들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선에서도 노시환(한화)이 대표팀 4번 타자로 입지를 굳히고 포수 김형준이 새 안방마님의 가능성을 보이며 기대를 부풀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MLB 선수들을 직접 상대해 볼 수 있는 이번 평가전 역시 젊은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1999년생



지난 1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A)와 팀코리야의 경기, 6회말 무사 주자 없는 상황 팀코리야 김택연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이였다. 신인 김택연(두산), 황준서(한화)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야구의 '젊은 피'들은 빅리거들의 강속구를 타석에서 지켜보고, 강한 타구를 잡아내는 수비를 하면서 귀중한 경험을 했다. 투수들도 힘과 정교함을 동시에 갖춘 빅리거들을 상대하면서 경험치가 쌓였다.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동주에 이어 등판한 원태인과 신민혁은 각각 20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특히 신민혁은 한 타자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불펜 투수인 정해영(KIA 타이거즈), 최준용(롯데 자이언츠)도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다저스전에서는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이의리(KIA)가 1이닝 2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흔들렸을 뿐 나머지 투수진은 안정적이었다.

신인들이 책임진 6회는 유독 눈길을 끌었다. 김택연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제임스 아웃맨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했다. 황준서도 대타 미겔 바르가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경기 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18세 우완 투수가 인상적이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타선에서는 김해성(기움 히어로즈)이 다저스 선발 바비 밀러의 시속 97.3마일(약 156.6km)의 강속구를 노려져 우측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를 작렬하기도 했다.

올해 말부터 굵직한 국제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연말에 열리고, 2026년에는 WBC가 개최된다.

두 대회 모두 속속 자라나고 있는 '젊은 피'들이 주축을 이뤄줘야 하는 대회다. 현재 성장세를 보던 기대도 커진다. /뉴시스



검도 동호인 한자리에

정읍시장배 검도대회 성료

2024 정읍시장배 전국 검도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는 검도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정읍시 검도협회(회장 강신무)가 주관하고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지역 내 동호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16일 개인전과 17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 결과, 개인전 초등부는 전재연(장점검도관), 김민준(세종TOP), 김도현(완주스포츠클럽), 김현아(메리트검도관) 선수가 1위를 수상했으며, 청소년부는 최선우(세종TOP), 최세미(세종퍼스트)가 차지했다.

또 여자부는 안슬기(성포검도관), 청년부는 장성원(한밭검도관), 장년부 김우석(국대검도관), 중년부 강종경(완산계검도관), 노년부 진현욱(정환검도관) 선수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전은 국대검도관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세종TOP, 임동혁검도관, 미르검도관, 학사검도관, 신센무도구가 각 부분별 우승을 차지했다.

이학수 시장은 "봄의 시작과 함께 정읍시장배 전국 검도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호인 대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 쇼트트랙 김길리

"감회 새로워... 부족한 점 더 보완하겠다"

1500m 금 · 1000m 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첫 금메달을 딴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예고했다.

김길리는 네덜란드 로데르담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길리는 이번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19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10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길리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다음 시즌 국가대표에 자동 선발된다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진행



김길리가 19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뛰지 않는다. 김길리는 "첫 세계선수권 개인전 금메달을 따서 감회가 새로고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어 "체력적으로는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게 힘들었지만 하루하루의 정신이나 육체적으로는 세계선수권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는 올 시즌 ISU 월드컵 종합 랭킹에서 세계 1위에 올라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은 바 있다.

또 김길리는 시즌 전 금메달 1개 이상을 노렸던 목표에 대해 "ISU에서 가장 큰 대회인 만큼 1등으로 끝났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았다. 금메달이라는 개인 목표를 이뤄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상승세에 방점을 찍었지만 만족은 없다.

김길리는 "선발전을 뛰지 않는 만큼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기 19분 단축 · 볼넷 8.4% 감소... ABS · 피치클록 도입 효과 '톡톡'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서 적용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투구 자동판정 시스템(ABS)과 피치 클록을 도입한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9일 "올해 시범경기 총 46경기는 2023년 시범경기 같은 기간(47경기) 대비 평균 경기 시간이 19분 단축됐고 볼넷 감소, 도루 성공률 증가 등의 지표를 보였다"고 전했다.

올해 시범경기 총 46경기의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30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경기 기준(전체 경기 수 67경기) 2시간58분에 비해 19분 단축됐다.

경기당 평균 볼넷은 7개로 지난해 7.64개와 비교해 8.4% 감소했다.

경기당 평균 도루는 1.74개였고, 도루 성공률은 74.77%였다. 지난해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시즌에는 평균 도루 1.66개, 68.42%의 성공률



을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안타는 16.74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홈런은 1.30개에서 1.72개로 증가했다. 타율과 장타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평균자책점은 2023년 3.92에서 4.35로 증가했다.

올해 시범경기에는 ABS와 피치 클록 외에도 수비 시프트 금지, 베이스 크기 확대 등이 적용됐다.

KBO는 개막과 함께 경기 지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뉴시스

양궁 안산, '매국노 논란' 사과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3관왕의 주인공 안산(광주은행)이 일본풍 주점 사진을 올리고 '매국노'라고 언급한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안산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저의 언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대표님, 점주분들, 관련 외식업체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안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이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야 함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며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해당 외식업체 대표님과 점주님, 관련자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GROUND

SEOHAK

김누리 이주원

손은영 박미정 박재연

조진규 김시오 노미정

INVITATION EXHIBIT

2024. 3. 21 ~ 4. 10

Sëohak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ART ART GALLERY 아트갤러리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AP 9 / 콘서트서학